

제31차 이사회 및 제9차 정기총회 개최

한국방사성동위원회는 지난 2월 11일 1993년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제31차 이사회 및 제9차 정기총회를 강남구 대치동 과학회관에서 개최 하였다.

이사회에는 재직이사 16명 중 15명과 감사 1명, 고문 공인회계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이어서 개최된 정기총회에는 재직위원 584명 중 155명(서면위임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고창순 회장은 인사를 통해 “협회가 1985년 9월 30일 발족 이래 사업규모나 시설등에 있어 장족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는 오로지 회원 여러분과 임원들의 아낌 없는 노력의 결실로 생각하며 이에 깊이 감사들인다”고 말하였고 “협회 육성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보내 주신 과학기술처 당국에 경의를 드린다”고 말하고 “특히 지난 한해 동안에 수입된 방사성동위원회와 방사성동위원회와 관련된 장비의 규모가 212억 5천여만에 이르러 이제 우리나라로 국산 방사성동위원회나 이에 관련된 장비의 국산화를 서두를 때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지난 한해 동안 협회가 시행한 두 가지 큰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첫번째 사업으로는 RI관련 교육사업으로 RI취급자 일반면허 응시자를 위한 통신교육에 459명, 방사선 구역내 작업종사자를 위한 교육에 684명으로 도합 1143명에게 교육을 실시 하였고 두번째는 방사성동위원회 폐기물 수거·운반 사업을 시행하여 폐기물 발생기관으로부터 방사성동위원회 폐기물 10 09드럼을 수거하여 원자력환경관리센터에 인도함으로서 RI사용기관의 보관 폐기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었고 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폐기물 발생기관의 개봉선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기록관리업무에 대한 설

명이 있었다. 끝으로 앞으로 계속 협회를 위한 협조를 당부 하였다.

이날 제31차 이사회에서는 제30차 이사회 의사록 보고와 정기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제9차 정기총회에서는 의안심의에 앞서 협회 운영에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은 인사에게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감사패를 받은 분은 한일원자력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명조, (주)이원양행 대표이사 박병설, 호진산업기연주식회사 대표이사 구자호, (주)부경사 대표이사 오영진, 한양종합검사주식회사 대표이사 채화묵 이상 다섯분이었다.

이어서 의안심의에 들어 갔는데

제1호 안건인 1992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결산승인의견이 상정되어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에 있어서 1992년 예산 3억5백만원인데 실제 수입실적은 3억1천7백만으로 1천2백만원(4.5%) 증가 하여 사업을 잘 운영 한것으로 평가 되었다.

다음에 제2호의안으로 199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상정되었다.

먼저 1992년도와 1993년도의 예산 총괄표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수입에 있어서 '92년도에 3억5백만원이 '93년도에는 4억2천5백만으로 1억2천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개봉선원에 의한 폐기물 수거 운반 사업의 시행으로 증가 되었다는 사회자의 설명에 이어서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 후 원안대로 통과 되었다.

다음으로 제3호 의안인 방사성동위원회 폐기물 회비 승인의 견이 상정 되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92년도 까지는 방사성동위원회 폐기물의 수거·운반 비용을 정부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 지원하여 왔으나 '93년부터는 기금에서 지원이 중단 되므로 방사성동위원회 사용자(폐기물 발생자)가 수거·운반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되어 방사성동위원회 이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방사성동위원회 판매업체가 방사성동위원회 구입시 사전에 일정요율을 회비로 납부케 하여 사용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항구적인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제도를 마련하는데 있다.

이 회비는 1993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원안대로 통과 되었다.

제4호 의안인 년회비 규정 개정의 건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통과 되었다.

제5호 의안인 임원선임은 과학기술처 원자력정책관 김지호,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환경관리센터 방사성폐기물관리부장 박현희, 그리고 농학계통의 이사를 신규로 추가하기로 하고 신규 이사는 회장에게 일임키로 의결 하였다.

제6호 의안은 정관 개정으로 그 내용은 이사중 당연직 이사 1명을 두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 되었다.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수거 운반 실시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는 지난 12월 28일 원자력환경관리센터로부터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수거·운반·적재용역을 수주 받아 직접 용역을 수행중에 있다.

이번 용역사업은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지원으로 수행되는 마지막 사업으로 오는 4월 27일까지 500드럼의 폐기물을 주로 의료기관에서 수거하게 되며 하반기부터는 협회가 자체적으로 수거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원고모집

本 協會에서는 매 분기 발간하는 會報誌에 게재할 기술정보, 국내외 소식, 수필, 학술활동 論壇 및 時論을 모집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 수시

○보낼곳 : 사단법인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진흥부

서울 강남구 대치동 960-12(과학회관 5층)

우편번호 : 135-280

전화번호 : 566-1092-3

※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